



보도시점 2023. 11. 21.(화) 11:00
< 11.22.(수) 조간 >

배포 2023. 11. 21.(화)

아세안 지역의 중심지(허브)인 싱가포르와 탄소중립, 신산업 협력 기반 구축

- 한-싱 통상장관회담 열어 저탄소 전환을 위한 「그린경제 업무협약(MOU)」 체결
-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 대상 무탄소(CF)연합 이니셔티브 동참 제안

한국과 싱가포르는 ‘2050년 순 배출 영점화(넷 제로)’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과 공급망 회복력 증진 등 역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과 신산업 분야 경제협력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. 21.(화)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한-싱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탄소중립, 공급망, 디지털 경제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먼저 안덕근 본부장은 11. 21.(화) 오전, 간킴용(Gan Kim Yong) 통상산업부 제1장관을 만나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과 공급망 강화 등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 이어서 탄시렝(Tan See Leng) 통상산업부 제2장관을 만나 에너지기술, 표준 등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,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「한-싱가포르 친환경(그린) 경제 업무협약(MOU)*」를 체결하였다.

* 주요 내용 : 저탄소 전환을 위해 △그린무역(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이행 협력), △탄소 감축, △탄소 저감 기술, △표준 및 상호인정 등을 중심으로 양자 대화 및 협력 사업 확대 등을 추진

이어서, 안덕근 본부장은 림밍얀(Lim Ming Yan) 싱가포르 비즈니스연합회장을 접견하여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4천여 개 이상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부들이 「무탄소(CF) 연합 이니셔티브」를 지지하고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.

한편, 안 본부장은 ‘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식’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의 전기차 제조기술 강점과 싱가포르의 물류·금융 강점이 결합하여 양국 친환경(그린) 경제 협력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.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민혜 (044-203-57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일호 (044-203-5716) |
| 담당 부서 |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윤진영 (044-203-48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관수 (044-203-4896) |